“청년대학생 전법, 불자 교수 양성부터”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 8월 24일 예비 워크숍

9월 5~6일 워크숍 앞두고 사전모임
자승 스님 “전법은 생존 문제” 강조
김응철 교수, 강의서 교수 양성 제안
MBTI 강연 통해 MZ세대 이해 나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학생 포교의 핵심은 ‘교수’ 입니다. 대학마다 핵심 불자 교수들을 양성해서 이들이 학교에서 전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 대학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불교동아리를 관리할 ‘불자 교수’들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위원장 돈관)는 8월 24일 동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예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는 9월 5~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마곡사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를 위한 사전 모임으로, 워크숍에서 이뤄질 강연 내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열렸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왜 대학생 전법인가’를 주제로 한 강의에서 현재 불교의 현주소를 되짚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의 조사를 통해 불교계 현 주소를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국불교는 개신교에 한국종교 1위를 내줬고, 이는 개신교 측의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올해 5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는 다시 불교가 제1종교의 자리를 탈환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참가자 대중이 삼귀의를 하는 모습.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현대인의 종교성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제도종교로부터 이탈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종교성이 약화되고 있다”며 “크리스찬 부디즘 등과 같이 종교의 좋은 부문만 선택하는 일명 ‘종교 쇼핑’ 현상도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교수는 ‘포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문했다. “양자역학이 가전제품에 활용되는 고도정보화사회에서도 불교는 농경사회의 유습으로 포교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교수는 “신도를 교육시켜 핵심 신도를 양성·조직화하고 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포교 역량을 강화하는 현대적인 포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대학 내 포교를 담당할 수 있는 포교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대학생 전법의 시작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학에 불교동아리를 개설하려면 지도교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졸업하지만, 동아리 관리·운영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도교수의 역량에 달렸다”면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이하 교불련)와 협력해 전국 대학별 핵심 교수 불자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사찰이 대학 불교 동아리의 협약을 통해 학생법회, 수련회 등을 지원하고 종단에서는 전법 지원을 위한 종책 시스템을 수립한다면 대학생 전법 진흥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대학생 전법의 의미와 방향’을 통해 대학생 전법의 나아갈 길을 분석했다. 이 회장은 “대학교 캠퍼스는 미래불교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적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전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예비 워크숍에서는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 △신구대 불교학생회(지도법사 해동 스님) △국립경상대 불교학생회 ‘연화’(지도교수 김용진) △경북대 불교학생회(회장 주현우) 등 청년대학생 포교 성공 사례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으며,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MBTI 강의도 마련됐다.

이에 앞서 입재식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은 한국불교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사찰에 가보면 나이든 신도들은 있지만, 젊은 세대를 볼 수 없다. 이 시기를 놓치면 10~20년 뒤에는 정말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워크숍에 참여한 스님과 불자들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며 “한국불교 생존을 생각하며 전법포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공감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는 오는 9월 5일부터 6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대학생 전법 진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열암곡 마애불, 활용 대안 제시를”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연구 1차 학술대회

“열암곡 마애석불입상은 성보 문화재로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가치보다 불교 성보로서 참배와 순례라는 신앙의 대상이란 가치가 앞선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입불 당위성과 더불어 문화유산의 활용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무진 스님이 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8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23년도 호국불교연구 1차 학술대회에서 불상의 특수성 인정과 활용 방안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주 남산과 열암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경주 남산의 불교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하고, 가람 및 문화 유물의 특성 이해를 통해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암곡 부처님을 어떻게 바로 모실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무진 스님은 입불이 결정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참배와 순례의 대상인 성보문화재로 열암곡 마애석불입상을 이해하려는 접근 없이 일반문화재의 보존이란 시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보로서 불상은 참배의 대상이며 순례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날 무진 스님은 참배와 순례의 가치로서 입불을 접근해 눈길을 끌었다. 열암곡 성보와 연결해 동남산 순례길은 문화적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

열암곡 마애석불입상을 중심으로 신선암 관음좌상과 칠불암 마애불, 통일전 그리고 탑곡과 불곡의 성보문화재를 연결하는 참배 순례길을 제시한 스님은 “입불이 현상 보존보다 어떠한 가치가 더 있는지 남산의 불국정토 활용의 가치에서 불교계와 모든 국민을 설득할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입불의 사회적 가치가 공론화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입불의 당위성이 확립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가 △신라불교와 경주남산의 의미와 가치-한국 문화의 원형 확보와 한국 불교의 고향 확립을, 박광연 동국대 WISE캠퍼스 국사학과 교수가 △남산 창림사와 신라 문성왕대(839~857)의 불교를, 김동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문화재전문위원이 △경주 남산 불교유적의 특징과 성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이태원 특별법, 진상규명 마지막 보루”

불교·천주교 등 4대 종교
특별법 제정 촉구 삼보일배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이뤄내야 할 특별법을 위해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온전히 담아 국회로 향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 희생자들의 이름을 되뇌고, 아스팔트 위에 던져지는 우리의 마음과 몸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소망을 빌 것입니다.”

8월 22일 오전 10시 29분, 스님과 신부, 교무 등 종교인과 시민들이 빗방울로 젖은 아스팔트 위에 엎드렸다. 10.29 이태원 참사 300일을 앞두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행렬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시청광장 분향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종교와 함께 삼보일배에 나섰다. 종교계에서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해 천주교남녀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모임’이 연대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지금까지 법안 심의가 되지 않은 상황을 규탄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유가족들은 끊임없는 슬픔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참사 발생 300일을 마주하게 됐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밝혀지거나 이뤄진 것은 없다”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테니 500일이든 1000일이든 견디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리는 빗줄기에 굴하지 않고 삼보일배를 이어가는 스님들.

그는 이어 “피를 토할 정도로 외치고 또 외쳐도 우리 아이들은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남은 가족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염원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보루가 특별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은 불교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혜도 스님이 맡았다. 스님은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양심과 수치를 모르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선 말씀하셨다”며 “누구도 사과와 인정, 특별법 제정도 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족과 시민, 종교인들이 나서서 삼보일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보일배 행렬은 이날 서울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애오개역까지 약 3㎞를 이동했다. 삼보일배에는 종교인과 시민 50여 명이, 연대행렬에는 총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다음날 마포역까지, 참사 300일이 되는 24일엔 국회 정문까지 삼보일배를 이어갔다.

윤호섭 기자

BBS 사장 후보 오병상·이우성

9월 13일 이사회서 최종 선출


오병상


이우성

BBS불교방송 신임사장 최종 후보로 오병상 前 중앙일보 편집인, 이우성 前 문체부 종무실장이 추천됐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8월 18일 불교방송 사장 후보 면접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같이 후보자 2인을 선정했다.

오병상 후보는 1985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1987년 중앙일보 기자로 입사해 언론인의 길을 걸었다. JTBC 보도국장, 중앙일보 편집인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를 맡고 있다.

이우성 후보는 1988년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문체부 종무실장, 충남 문화체육부지사를 거쳐 브랜드성장위 부위원장에 재직 중이다.

불교방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오는 9월 1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장을 최종 선출한다.

신성민 기자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동국대학교

2022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순위 2년 연속
9위

혁신적 상상력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합니다
2024학년도 수시모집
2023.09.13.(수) 10:00 ~ 09.15.(금) 17:00